

옥수수 선물가격, 미 농무부의 예상보다도 큰 수확량 감소 발표로 인해 최고치 기록

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

구분	기준일 ('19.06.11)	전일대비	전월평균 ('19.05)	2018 평균
밀	190.33	▲2.1%	170	183
옥수수	168.40	▲2.9%	151	146
대두	315.72	▲0.1%	307	344

단위 : US\$/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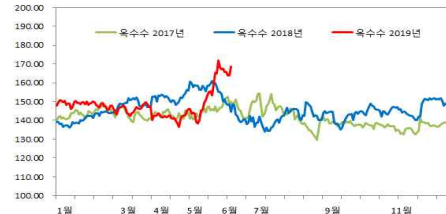
주)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(적색연질밀: SRW), 옥수수, 대두의 근월물 (밀 : 7월, 옥수수 : 7월, 대두 : 7월물) 정산가격임.

밀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.1% 상승했다. 밀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기말 재고량을 예상보다 크게 삭감한 후 더 높은 수준으로 마감했다. 미 농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2018/19년 미국 밀 중추 추정치를 5월 11억2,700만 부셀에서 11억2,000만 부셀로 하향 조정했다. 이 추정치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인 11 억1천만 부셀에 미치지 못했다. 보고서는 2018/19년 밀 수출에 대한 예상치를 지난 달 9억2,500만 부셀에서 9억5천만 부셀로 증가시켰다. 미 농무부는 또한 2019/20년 5월의 밀 기말 재고량 추정치를 11억 4,100부셀에서 10억7,200만 부셀로 축소했다. 상인들은 옥수수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도 밀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.

옥수수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.9% 상승했다. 옥수수 선물가격은 미국 농무부가 전례 없는 파종 지연으로 인해 수확량 전망치를 예상보다 크게 낮춘 뒤 화요일 1주일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다. 미 농무부는 월간 보고서에서 5월 옥수수 생산량 전망치를 예이커 당 166부셀로 10부셀(5.7%) 감축했다. 분석가들은 172.4 부셀로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었다. 농무부는 미국의 옥수수 생산량을 136억 8천만 부셀로 정했는데, 이는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확량이 될 전망이다. 또한, 농무부는 2019/20년 미국의 기말 재고량을 16억 7,500만 부셀로 추정했는데, 이는 5월의 24억8,500만 부셀과 분석가들의 추정치인 19억1,700만 부셀보다도 낮은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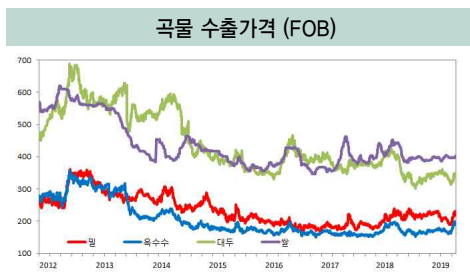
대두 선물시장 상황



시카고 선물 거래소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.1% 상승했다. 대두 선물가격은 옥수수 시장 상승에 대한 지지로 인해 소폭 상승했다. 농부들은 습기가 많은 날씨로 어려움을 겪어 올 봄에 옥수수를 재배하지 못하게 됐다. 여건이 좋아지면 에이커를 대두로 바꿀 수 있고, 이것은 대두 공급량을 증가시킬 것이다. 미 농무부는 2019/20년 5월 미국의 대두 기말 재고량을 대한 추정치를 지난달 9억7천만 부셀에서 10억4천 5백만 부셀로 상향 조정했다. 미 농무부는 또한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18/19년 작황의 대두 수출 전망치를 한 달 전의 17억7,500만 부셀에서 17억 부셀로 하향 조정했다.

관련동향

- 하역용량의 부족과 하역 대기 중인 선박의 밀, 옥수수, 대두 등의 6월 수출가격은 공표가 되지 않음. 걸프 수출 할증료(7월)는 대부분 안정세를 보임.
- 11일 국제유가는 OPEC+의 감산 연장 가능성 지속, 중국의 경기 부양책 시행,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부터 상승압력을 받았고, 미-중 무역 분쟁에 심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, 주요에너지기관의 세계석유수요 증가 전망치 하향조정 등으로부터는 하락압력을 받음.



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구분	기준일	전일대비		
곡물수출가격 (FOB)	밀	223	▼0.4%	환율	원/달러	1,184.0	▲0.4%
	옥수수	190	▼0.5%		달러/유로	1,1315	-
	대두	339	-	국제유가	WTI	53.27	-
	쌀	403	-		Dubai	61.28	▼1.0%

주 1) 밀(US SRW Gult), 옥수수(US 3YC Gult), 대두(US Gult), 쌀(Thailand 100% Grande B), WTI(근월물), Dubai(현물)

2) 기준일은 '19.06.10(수출가격), '19.06.11(환율), '19.06.11(국제유가)이며 자료출처(국제곡물이사회, 한국은행,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